

최연의 산 이야기 <22> 오대산 2



오대산 입구에 있는 대가람 월정사 적광전과 팔각구층석탑.

‘인류 대환란’ 생명·생태 파괴로부터 말미암음이니

오행사상(五行思想)은 풍수지리학에서는 자주 인용되는 사상으로 신라시대부터 불교사상에 원용되는 현상은 신라시대에 널리 수행해 오던 선도(仙道)의 영향이 컸으리라고 생각된다.

오행이란 우주만물을 형성하는 원기(元氣)로서 목(木), 금(金), 화(火), 수(水), 토(土)를 이르는 말인데 오행이 때로는 서로 화합(和合)하고 때로는 서로 억제(抑制)하며 사물의 상관관계를 형성해 간다는 것으로서 사물의 상호관계(相互關係) 및 생성변화(生成變化)를 해석하는 사상을 일컫는다.

오행에 해당하는 방위(方位)와 계절(季節)과 색상(色相)을 비교해보면 나무(木)는 동쪽(東)이며 봄(春)이고 파란색(靑)이며, 쇠(金)는 서쪽(西)이며 가을(秋) 흰색(白)이고, 불(火)은 남쪽(南)이며 여름(夏)이고 붉은색(赤)이며, 물(水)은 북쪽(北)이며 겨울(冬)이고 검은색(黑)이며, 흙(土)은 가운데(中央)며 사계절(四季節) 모두를 포함하고 누런색(黃)을 나타낸다.

이러한 오행사상은 뒤에 성리학이 들어온 고려 이후부터는 인간이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道理)로서 인(仁), 의(義), 예(禮), 지(智), 신(信)의 오상(五常)사상까지 합쳐서 한양의 도읍을 축성할 때와 사대부의 집들을 새로 지을 때 오행사상을 늘 적용시켜왔던 것이다.

마찬가지로 오대에 모시는 다섯 부처님도 오행사상에 따라 동대(東臺) 관음방(觀音房)에 청색(靑色) 관음보살(觀音菩薩)을 서대(西臺) 미타방(彌陀房)에 백색(白色) 무량수불(無量壽佛)을 남대(南臺) 지장방(地藏房)에 적색(赤色) 지장보살(地藏菩薩)을 북대(北臺) 나한당(羅漢堂)에 흑색(黑色) 석가모니불(釋迦牟尼佛)을 중대(中臺) 진여원(眞如院)에 황색(黃色) 비로자나불(毘盧遮那佛)을 모셨던 것이다.

것이다.

오대산 입구에 있는 대가람 월정사(月精寺)는 오대 중의 하나인 동대 만월산에서 뻗어 내린 산줄기가 굽구러져 내려앉기를 여러 번 한 후 마지막 힘을 크게 펼쳐서 만든 터에 자리 잡고 있다.

월정사 터는 주산에서 뻗은 맥이 튼실하고 기운이 왕성하며 좌청룡 우백호 그리고 안산(安山)도 모두 후덕하고 물이 빠져 나가는 수구(水口)도 우백호와 안산이 서로 겹쳐서 막아주니 기운이 새어나갈 수가 없다.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안산이 너무 높고 시야가 너무 좁은 천옥이라는 점이다.

천옥의 명당은 흥할 때는 불꽃처럼 빨리 일어나 그 기운이 오래가지 못하는 속성속패(速成速敗)의 땅인 것이다.

그래도 주맥과 좌청룡 우백호의 후덕함이 이곳에 학자(學者)와 현인(賢人)을 많이 배출할 수 있는 기운은 지녔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인지 월정사에는 자장과 신희 이래로 많은 고승 대덕들이 머물렀는데 고려시대에 나옹화상, 조선 초에는 무학대사가, 최근에는 탄허스님이 머물렀던 곳이다.

자장율사는 문수보살을 친견하고자 잠시 머물렀고 자장율사가 이곳을 떠난 뒤에는 신희(信孝)거사, 신의, 유연스님 등이 머물렀다.

신희 거사에 대한 이야기는 <삼국유사(三國遺事)>에 자세히 전해져 오는데 효심이 지극한 신희는 사냥을 하여 어머니께 고기를 봉양하곤 했는데 못짐승들을 애뜻이 여기게 되어 사냥을 하는 대신에 자기의 넓적다리를 어머니께 바치는데 신라의 국사(國師)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던 자장율사는 문수보살을 친견하려는 뜻을 이루지 못하고 오대산을 떠났는데 신희는 오대산에 머무르던

오류성종(五類聖衆) 즉 문수보살, 지장보살, 관음보살, 대세지보살, 석가여래를 다섯 스님으로 몸을 나뉜 상태로 친견을 하게 된다.

탄허스님은 상원사에 주석하셨던 방한암스님의 제자로 미래를 예견하는 많은 일화를 남겼다.

탄허스님은 머지않아 인류사에 대변혁이 오리라고 했는데 그 변혁은 우주질서의 변화와 함께 이루어지는 것으로 지금까지의 인류역사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세계가 펼쳐진다고 하였다.

<격암유록>을 남긴 남사고 선생, 새로운 시대의 정역(正易)을 밝힌 김일부 선생, 밥이 하늘이라는 동학사상의 수운(水雲) 선생, 의식혁명을 통해 후천개벽을 이루려는 강증산 선생 등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이상향은 그 새로운 시대가 오기 전에 필히 인류는 큰 환란을 겪게 된다고 했는데 그 환란은 이상 기후와 지각변동으로 인류는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된다고 한다.

탄허 스님에 따르면 그 환란 후에는 일본 열도는 바다 속으로 갈아 앉고 23.5도 기울어진 지구가 바로 서고 한반도가 세계의 중심으로 우뚝 선다고 말씀하셨다.

그 결과의 진위(眞偽)와 관계없이 최근의 기상악화(氣象惡化)로 인한 지구상의 대재앙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통찰해 보면 선지자들의 예언이 애깃거리로만 흘러보낼 내용이 아니라 오싹한 전율을 느끼게 한다.

이러한 대환란을 막을 수 있는 길은 대성인들이 나타나서 그들이 가르치는 대로 살면 인류의 파멸은 모면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가르침이라는 것이 인간의 욕망에서 비롯된 지구의 생태와 생명을 파괴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는 것이 아닐까 곰곰 생각해 본다.

■ 최연 (아시아문화연대 이사장)

유승도의 산에 산에 피는 꽃은

소주 한 병

“사람들한테 천 원만 달라고 하면 잘 줘. 허허허허.” 천동이 아빠, 소주 한 고뿌 하자고 내 팔을 끌며 서부시장 안으로 들어간다. 아무 말 못하고 끌려가는 나를 나도 막을 수 없었다.

“소주 한 병!”

230년 전도 아니고, 소주만 시킨다는 것이 못내 이상했다. 안주 좀 시키라고 하니, 손을 찌른다.

플라스틱 물컵 두 개와 소주 한 병에 오이 대여섯 쪽과 된장이 따라 나왔다.

“저녁은 드셨어요?”

“이게 밥인걸 뭐. 허허허. 저 사람 이제 나오네.”

천동이 아빠가 시장 안으로 들어서서 남자를 보고 손을 들어 인사를 한다. “나는 술로 사는 사람이요” 라고 말을 하는 듯, 남자의 얼굴빛이 검다. 남자는 천동 아빠 옆에 나란히 앉은 뒤에도 말 한 마디 하지 않는다.

“막걸리로 줄까?”

아주머니에서 할머니로 넘어간 나이의 추레한 여자가 특 땅에 동전 하나 던지듯 묻는다. 남자는 입을 열기도 귀찮은지 고개를 슬쩍 끄덕인다. 미세한 머리의 흔들림을 놓치지 않은 여자가 막걸리 한 병과 플라스틱 컵 하나에 오이 서너 쪽과 고추장을 붙여 남자에게 내놓는다.

“이번 가을부터 노령연금이 나온다 하더라도, 술값 외상할 일은 없으시겠어.”

사람들이 오가는 시장 한복판의 좌대에 앉아 한 자리 건너의 생선전열대에서 건너오는 비린내를 맡으며 질척질척한 바닥을 보았다. 울컥, 자리를 박차며 나가고 싶은 충동이 치민다.

“소주 서너 병 마시면 하루가 그냥 가. 자, 잔 한 해!”

잔배를 하자는 천동 아빠의 손길을 뿌리칠 순 없었다. 잔을 들어 부딪혔으나 ‘탁’ 소리 비슷한, 심경이 그지없는 소리가 들리지도 않게 울리다 바닥으로 떨어졌다.

‘목욕이구나!’ 한 모금 들이킨 뒤 나는 잔을 은근슬쩍 내려놓았다. 허연 가루약처럼 썼다. 비을 염두가 나지 않았다. 플라스틱 컵에선 배어 있던 무순 냄새가 기어나와 입 안을 역겹게 만들었다. 천동 아빠 옆의 남자는 여전히 말 한 마디도 없었다. 천동 아빠도 남자에게 말을 건네지 않았다. 술도 권하지 않았다.

“천동인 잘 있나요?”

“감자떡 만드는 공장에 15만 원씩 받고 다니더니 요즘엔 집에 박혀서 움푹도 안 해. 공장에 잘 다니던 큰 애까지 얼마 전에 집에 들어오더니 빈둥거리면서 뭘 할 생각을 안 해.”

“형수님은 별 일 없으시죠?”

“병원에서 아주 살지 뭐. 이젠 나를 생각도 안 해. 치료비가 무로니까 상관없지. 허허. 나 이전 노숙자다 됐어. 사람들이 돈 잘 쥐. 저기 지나가는 저 아주머니 날 만나면 알아서 천 원씩 쥐. ‘오늘 한 잔 못했지?’ 물어보면서 손에 쥐어준다구. 잘 쥐.”

천동 아빠의 손짓이 가리키는 시장 입구를 바라보니 허리가 구부정한 여자가 뒷집을 지고 걸어가고 있다.

“그만 가봐야겠습니다. 도서관에 불일이 좀 있어서...”

“응, 가봐.”

의외였다. 잔을 줄 알았다. 술자리에선 좀체 뇌주지 않던 끈질긴 사람이 아니었던가? 할머니에게만 원짜리 한 장 내밀며 거스름돈은 천동 아빠에게 드리라는 눈짓을 하곤 서둘러 돌아서서 발걸음을 옮겼다.

“지난 번 소주 값 제하고 줄까?”

천동 아빠에게 묻는 할머니의 음성이 갈갈인 듯 날카로웠던가? 아니면 천동 아빠가 나를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해서였을까? 등이 서늘했다.

짧게 깎은 허연 머리. 특 튀어나온 배. 벌어진 어깨. 짧고 굵은 다리. 동그란 눈.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는 아내와 학교 폭력에 시달린 끝에 정신 장애자가 된 막내아들, 실업자가 된 큰아들을 가족으로 둔 사람. 내게 땅을 팔고 읍내로 나간 남자. 술로 하루도 하루를 사는 사람.

그의 식사에 함께 하지 못한 미안함 때문이었는지 나는 명칭이 된 채 산속 집으로 돌아왔다. 생각하니 그의 얼굴은 떠오르지 않고 소주 한 병만 다가온다. 소주 한 병에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인 듯 따라붙는 플라스틱 컵과 오이와 된장.

■ 유승도 (시인)

사업장의 범구 금강 삼고저 장사성공과 사업성공 축원불공 마쳐!



부처님 제1의 비방범구

경기가 너무없어, 장사가 너무안되, 문을 닫아야겠어, 요즘사업을 하는 중생들의 푸념이다. 반면 목도 안좋고 불경기에도 흥왕을 누리는 점포와 사업장도 많다. 부자가 되는 터가 있고, 패망하는 터가 있고, 그리고 항상 겨우겨우 먹고사는 터가 있다. 한편을 한지붕 밑에서도 좋

개업 선물로도 품격! 장사가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운터가 있어 사업이 잘되고 장사가 흥왕하는것을 불수 있다. 장사가 안되는 자리를 보면 중생의 지혜도 부족하지만 터도 세고 보이지 않는 잡귀의 방해로 오는 손님의 마음을 흔들어 문앞에서 방향하게 만들고, 들어와도해도 결정을 못하게 방해하며, 일하는 사람이나 직원들은 오래 있지 못하고 첫손님이 헛손님이 되면 하루종일 헛손님으로 장사를 힘들게 잡귀가 조화를 부린다. 부처님 제1의 범구인 금강삼고저는 사업장의 화를 미리 쫓고 잡귀를 물리치며 사업성공의 수호신으로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거상들이 사업장에 걸어 놓았던 금강삼고저를 국립 중앙박물관에서 유물로 불수 있다. 각종 식당과 점포, 각종 사업장, 산재위험이 있는 사업장 등에 금강삼고저가 걸려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으며 장사흥왕 및 사업번창과 산재예방의 축원 불공을 마치고 시판하는 금강삼고저는 금니로 제작되어 있어 품위가 있고 가로8cm 세로3.5cm에 벽에 걸고 고리와 수술이 달려있어 사업장 안에 걸어 놓으면 좋습니 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가격 : 85,000원 (신용카드 분할가) 문의 :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농협 : 032-12-193445 이상하 (사할스님 20% 할인)

장사 성공을 축원합니다

식당, 가든, 의료점, 보석상, 부동산중개소, 이미용실, 목욕탕, 다방, 정육점, 노래방, 주점, 모텔, 여관, 병원, 각종학원, PC방, 당구장, 서점, 인쇄소, 문방구, 기원, 복권방, 각종스포츠센터, 핸드폰점, 보험사무소, 인경점, 신발매장, 전자제품매장, 미곡상, 방앗간, 공장, 주유소, 산재사고 위험 사업장 등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Advertisement for 'Daranibok' (다라니福지갑) featuring images of men's and women's wallets. Text includes '평생부자지갑' (Lifetime Rich Man Wallet), '원하는 재물을 얻고 평생 부자로 살게 축원 불공 마쳐' (Achieve what you want and pray for a lifetime of wealth), and '소중한 남편과 가족친지에게 성공의 선물' (A precious gift of success to your husband and family).

Advertisement for 'Dranipyeong' (드래니평) featuring an image of a gold talisman. Text includes '용띠, 쥐띠, 원숭이띠, 드는 삼재시작 조심' (Beware of the Year of the Dragon, Rat, and Monkey), '삼재무탈하게 축원불공마쳐' (Pray for safety from the Three Calamities), and '삼재화를 소멸 승리하는 비방' (The secret to vanishing the Three Calamities and achieving victory).